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학력이라곤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택시 기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나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냈지만 서른이 넘도록 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승차 거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차에서 내린 곳이 어두운 길이면 꼭 헤드라이트로 앞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누나는 뼈뺀 형편에도 고아원에다 매달 후원비를 보낼 정도로 누나는 파스칼이 누구인지는 모르

지만, '남모르게 한 선행이 가장 영예롭다'는 파스칼의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 어느날 누나는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 덤프 트럭과 충돌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고 게다가 여자 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같이 산다면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실연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누나와 나는 외출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을 넘게 택시를 잡으려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듯 지나쳐 갔습니

다. 도로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분노가 솟구쳤고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시가 한 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뒤편의 트렁크가 열렸 습니다. 그리고 운전사 자리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안아 태우는 동안 여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기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 택시 기사와 결혼해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전 8:3)"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첫별을▶

어느 중학교 국어 시험 마지막 문제: '장래희망을 간단히 적으시오'

★어느새 친근해진 우리의 A 학생 답:

"나에게 수학은 영원한 적. 과학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러나 자신있는 것은 단 하나, 바다속이! 난 바다속이를 열심히 해서 소끼사가 될거다. 꾸 ★ 은 이루어진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3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7월 28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감 사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수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게 너무 많다면  
그건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다 차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빠근하고 피곤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너무 자무 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엢 5:4)"

엄마가 딸에게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운전할 때  
볼 쓸 때  
돈 쓸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강이 허약한다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게으름과 무절제한은  
일어나는 시간으로 형성된다

# 주 일 예 배

(\* 표는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0(시 9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40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1:14-26(신 111)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빈마음을 채우라'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주를 처음 만난 날'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축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김영길 집사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7,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8	김성국	이재영	김교섭.정희자	김영길	김종우.김종원
4	김교섭	이지영	박병민.이기중	김종건	김현수.남형진
11	정덕수	정희자	박상옥.이금선	김종우	민광호.박기원
18	김종건	최기향	박정자.정희자	김종원	박병민.박상옥
25	이광희	최재학	양경배.김동숙	김현수	박일영.사카시다

「불신자도 예수를 압니다. 마귀도 예수를 압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또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아이 등교시키는 아침에 앞차에 앉은 여학생의 도승이 물방울 맺힌 청포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겪을 땐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속수무천으로 바라다 보는자가 아니라 속사랍은 날로 새로워 지는 그리스도인임입니다.

- 1.오늘은 사랑의 실천'이삭줍기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Silver Coin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아이들이 지구상엔 5억이나 됩니다
- 2.교우소식  
\*민광호,김심홍집사:부친(김심홍 집사) 김경수 목사님 장례식 마치고 지난 월요일 오셨습니다.  
\*이사:한정옥 집사(규정.규형):☎ 521-7458 ☐ 7 Pyatt Cres. Meadowbank  
<상담실 '로렘나무아래'운영> 한정옥 집사(정신과 전문의). 매주 목요일 10-4시  
본당안 주일학교실  
인터넷 상담:my.dreamwiz.com/underodem 19
- 3.등록하셔서 갈보리 가족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세진,박혜련 집사(2선교회).한빈.요나 ☎476-1198 ☐ 2 Follow St. Browns Bay
- 4.모임:제1 남선교회. Tea Time 시간에 모입니다
- 5.정기당회:월요일 저녁 7:30. 교회당
- 6.제2 남선교회 주관 차량 무료 점검:Tea Time 시간에 주차장에서 갖습니다  
\*자원봉사:·JVS Car Clinic 박종원 사장.  
\*점검진행:윤형권 집사

## <8월행사>

일자	교회행사	모임.회의
4		구역예배(9) 결식자 식사봉사(10)
11	광복기념주일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3)
18		약속의 아버지기도회(20)
25	이삭줍기	여성교회

##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전화선을 타고 멀리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건강한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바쁜 발걸음소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작고 앓던 신혼 살림 그대로 내보이고 구수한 김치찌게 당당하게 내어 놓는 신혼 부부의 정겨운 집들이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비록 연로하셨지만 인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히 풀어 내는 노인의 편안한 목소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